



꿀벌이 주는 최고의 선물

超藥 - 초약 프로폴리스

-지난호에 이어서-

◆ 이론보다 증거가 보이는 프로폴리스의 항암효과

2. 귀중한 체험의 사례

나에게 보내 온 암과 싸우는 사람들의 프로폴리스 체험을 암 병소의 부위별로 요약하여 소개하겠다. 제6장의 체험담을 읽어보고, 참고로 해주었으면 한다. 이런 체험담으로 판단되는 것은 프로폴리스는 암 예방 이외에, 초기단계와 진행단계에서 수술 후의 전이와 재발의 방지에도 뛰어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작용의 경감 효과는 물론, 프로폴리스와 각종 서양 의학적인 치료법과의 병용에 의해서 더욱 상승적으로 암과 싸우는 '파워'가 생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최근 이러한 체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져, 프로폴리스를 치료의 '백업'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간의 연계가 가속적으로 퍼져가는 것은 기쁜 일이라 하겠다.

■ 간암-40대의 남성

간암의 병소가 어린이 머리만큼 커져, 도저히 수술로 제거할 수 없다고 진단 받았다. 그러나 프로폴리스를 복용하고 있던 중 점점 병소가 축소되어, 현재는 제일 컸을 때의 3분의 1정도가 되었다. 병원에서는 지금의 상태면 수술도 가능하니, 입원해서 철저히 치료를 받도록 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선불리 몸에 '칼을 대어 자극을 주는 것보다 이대로 프로폴리스를 계속 먹으며, 암과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워보겠다'고 한다.

■ 위암-70대의 남성

위암이 임파선, 췌장에 전이되어, 남은 수명 반년을 선고받은 날부터 대량의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했다. 그 후 '바이패스'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막상 개복을 해보니 암은 검게 굳어지고, 타서 그을린 상태가 되어 떨어져 나가 있었다고 한다. 그 수술로 위는 전부 절제했지만, 선고

를 받은 후부터 현재까지 4년 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장암-50대의 남성

50대 남성 한 분은 대장암이 임파선으로부터 허리뼈까지 전이하고, 한때는 식사를 하기 위해 앉을 수도 없게 된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퇴원해 다음 날부터는 자기가 차를 운전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때에도 병원의 검사 결과는 남은 수명이 반년이라고 했는데, 그 후 이미 2년이 경과, 최근에는 한밤중까지 일을 해도 관찮을 정도로 체력적으로 회복됐다. 주치의가 놀라며 "이제는 걱정없다."고 보증까지 했다.

■ 유방암-40대의 여성

한 40대의 여성은 유방암 수술을 받기 10일 전에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손을 위로 올리지 못하는 등의 부자유스러움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활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1년 동안 노력해도 그전에 올린 만큼 높게 팔을 올릴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이 여성의 경우는 수술 다음날 손을 높이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재활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받고 그대로 퇴원했다.

■ 자궁암-40대의 여성

40대 여성 한 분도 3년 전에 자궁암으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했다. 재발을 알았을 때는 이미 간장과 폐에도 전이가 되어 있었다.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는 피부가 짓무른 상태가 되고, 머리카락이 전부 빠져 버렸는데, 프로폴리스를 계속 먹으면서, 같은 치료를 받은 두 번째의 치료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수개월 후의 검사에서는 체내의 암세포가 모두 없어지고, 주치의가 "그 환자가 거기까지……." 하며 감탄하는 정도로 회복됐다.

■ 고환종양-20대의 남성

고환종양은 외과적으로 적출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생식능력을 포기하게 된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이 병에 걸려 결단이 필요할 때, 이 남성은 프로폴리스를 먹을 것을 선택하고, 이 병을 극복했다.

◆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대량투약

1. 어째서 대량투약인가

암 치료약의 개발은 나날이 새로운 성과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진척되고 있다. 현재 3~40종류의 항암제가 개발되었으며, 암 종류에 따라 가장 유효한 항암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2~3종 의약품을 병용하던가, 암 병소 부분에만 항암제를 높은 농도로 집중시키는 방법도 고안되었으며, 상당히 높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항암제의 종류로는 아래의 다섯 종류가 있다.

- 알긴화제(나이트로젠 마스터트제, 에치렌이민제 등)
- 대사결항제(엽산결항제, 프린결항제 등)
- 호르몬(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 황제 호르몬 등)
- 기타(빈브라스틴, 빈크리스틴 등)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여준 일이 있는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1주일에 한번 약국에서 쇼핑백에 가득히 약을 받아 온다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항암제의 다제병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구역질을 멈추게 하는 약, 떨어진 백혈구 수를 올리게 하는 약 같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컨트롤'하는 약과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약, 진통제, 신경안정제 등이 동시에 처방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약을 복용하기 위해, 약을 복용시키는 것이 이 대량투약의 실태이다.

2. 부작용과 주작용

암 세포는 정상 세포가 극히 적은 이변을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암세포와 정상 세포는 실제로는 그리 멀지 않은 인척관계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 세포를 공격하려 하면, 여기에 정상 세포까지 말려들어 '데미지'

를 받게 된다. 암 세포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항암제가 정상 세포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열, 전신 권태, 백혈구 감소라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부작용이란 약의 약리 작용에서 치료목적에 어긋난 반응을 말한다. 치료목적에 맞는 기대한 대로 반응을 주작용이라 하는데, 이 주부(主副)관계는 중심이 되는 작용과 부차적인 작용이라는 것이 아니고, 치료목적에 맞는 긍정적 반응과 치료목적에 어긋난 부정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즉, 이 주와 부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을 해열 진통제로 사용할 경우, '아스피린'이 가지는 혈소판의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일으켜, 출혈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 현상은 부작용이라 하게 된다. 그러나 '아스피린'을 심근경색 환자에게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처방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메카니즘'과 효과를 가지는 작용이 치료 목적에 맞는 주작용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똑 같은 병세이며, 똑 같은 약을 처방했다 할지라도 그 약의 효과와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약에 대한 감도도 다를 것이며, 약을 이물로 판단하여 물리치려 하는 인체의 면역반응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이체질과 약물 알레르기과 같은 특수한 사정도 관계되어있다. 예를 들어 A에게 사용했더니 적당한 양이었다고 해서, B에게도 같은 양을 사용하면, 그것이 B에게는 과잉투약이었다고 하는 것도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그 약이 항암제 같은 강력한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근소한 과잉투여라 할지라도 부작용은 심각한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기가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구하고, 복용하는 양 등도 자기 책임 하에 '컨트롤'한다는 풍조가 확립되어 왔다. 일본에서도 최근에는 의사가 준 약을 해설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책에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사가 하는 말을 거역하여 약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년 의료진



칼을 받는 사람의 0.44%(입원 환자수로 추산하면 연간 약 13만 명)가 약의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 0.44%라는 숫자를 단순히 일본의 입원 환자수(134만 7천 명, 1993년 후생성 환자조사)에 적용하면 약 6천명이라는 가공할만한 숫자가 나온다.

이런 공포를 실감시키는 사실이 1993년에 일어났다. 폭넓게 강한 효과를 나타내는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는 '5-후루오로우라실' (5-FU)라는 항암제와 항바이러스제 '소리브진'을 병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일어나 14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후생성은 의약품의 효과와 치료경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약의 부작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에 겨우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 '데이터베이스' 작성은, 대책이 늦은 것으로 지적되었던 약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의 정보를 분석하고, 투약방법 전에 도움을 주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약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은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겠다는 의료행정이 이제 겨우 개선 방향으로 전진된다는 느낌이다.

-다음호에 계속-

3월 증봉 분양안내

성명	주소	봉군수	연락처
류성태	대구시 서구	120군	053-553-4227 018-504-4227
이해중	강원 춘천시	60군	016-268-4247
김홍윤	서울 마포구	100군	02-324-4460 018-338-4460
이재일	전남 보성군	70군	061-853-9912
최병춘	경남 진주시	350군	055-752-4482 017-549-4482
배황근	대구 달성군	80군	053-616-8858 018-507-8858
김옥미	경남 창원시	500군	011-606-9450

양봉농가를 생각하는

윤 지 실 업

※ 회사소개 ※

- ◎ 주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165-7
- ◎ 대 표 자 : 윤지훈 (H.P : 011-546-7917)
- ◎ 전화번호 : 054-932-5854,
FAX : 054-931-5654
- ◎ 담당직원 : 유한진 (H.P : 011-9567-2119)

※ 제품소개 ※

- ♣ 벌통 I (7매상) : 하우스 수정용 및 분군용
- ♣ 벌통 II (9매상) : 강군 육성용 및 일반용
- ♣ 계상형 벌통(9매상) : 계상군 육성용 및 소비보관용 등 다용도
(출시 예정, 하부 보강용 플라스틱 장착으로 견고함)

※ 제품특징 ※

- ▲ 전면 보강 플라스틱 부분의 완경사각 유지.
- ▲ 내부 및 전면의 코팅처리로 벌이 잘 굽지 않음.
- ▲ 소광겔림틀이 디근지형 플라스틱으로 되어 내검시 본체 보호.
- ▲ 소상 내부의 전면 구석에 찌꺼기 모임 방지 처리(삼각 언덕)
- ▲ 뚜껑의 환기창에 격자망 장치로 쥐의 피해를 없앴.
- ▲ 실용신안 등록 0261139호
- ▲ 실용신안 등록 0282594호
- ▲ 실용신안 등록 0287083호
- ▲ 특허출원 제 10-2001-0065771호